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운영위원 활동중단을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회원 9명과 몇몇 회원은 1997년 8월 29일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활동 중단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이 장애여성의 문제를 상품으로 포장해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태를 비판했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분노합니다.
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촉해 사업을 추진해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더 이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꼭두각시 전시물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세워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여성을 탄압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며,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의 문제를 어떤시각으로 고민하는가에 질문을 던지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4.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장애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사업을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여성의 시각에서 장애여성의 풀어나가고 사회속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차별화 시키고자 공부하는 것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과 몇몇 회원들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활동을 중단하며, 앞으로 장애여성의 이 사회에서 주인됨을 찾고 장애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자기 목소리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자리매김이 하루빨리 오도록 노력합니다.

1997. 8. 29

김광이, 김은정, 김진옥, 박순천, 박영희, 배복주, 서정아, 안은자, 정영란, 홍성희.